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
환자 이송비 확대 지원

부안군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응급의료의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 간 이송 지원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약계층(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응급환자로,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뱃짚환원사업
29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2025년 뱃짚환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뱃짚환원사업은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뱃짚을 수거하지 않고 잘게 썰거나 파쇄해 그대로 논에 되돌려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지역 내 벼 재배 농가다. 뱃짚을 환원한 면적에 따라 1ha 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가능한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대 3ha까지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뱃짚을 수확하지 않고 썰어 논에 그대로 남겨야 하며, 시는 오는 11월 신청된 농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 공공임대주택 40호 공급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공모 선정... 국비 약 32억원 총사업비 100억여원 규모

고창군이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군청 뒤편 옛 관사 등으로 쓰이던 곳이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타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신활력산단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에 이은 삼덕읍표 청년주거정책 3관왕(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게 됐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약 3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약 4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대상지는 고창읍 교촌리 87번지 일

원으로, 옛 관사와 어린이집 등으로 쓰였던 곳이다. 행정기관 및 생활편의 시설과 인접해 있고, 차량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 청년층거주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5.54㎡의 투룸형으로 구성되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약 4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또한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옥상 정원 등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소통과 창의활동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창군이 직접 시행 및 운영을 맡아 추진된다.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주거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삼덕읍 군수의 청년주거정책 3관왕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타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1H, 210세대)', '신활력산단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200세대)', '청년특화주택(40세대)' 등을 따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고창, 청년이 자립하고 꿈꿀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2025년도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태풍 내습기 대응방안 논의

부안해경,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2025년도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해양재난발생 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구조전략을 협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는 부안·고창군청, 부안·고창소방서, 부안·고창수협, 군 산지방해양수선정, 전주기상지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해양사고 사례 및 구조 분석 △태풍 내습기 대비 구조협력체계 점검 △기관별 대응계획 공유 및 협조 사항 논의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구조지원(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박생덕 서장은 "태풍 내습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사전대비체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 내 구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생활인구 유입 '부안사랑인' 제도 시행

11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부안사랑인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안사랑인 제도는 부안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부안사랑증 발급 시 다양한 부안군 정보 및 부안사랑인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42개소 모집을 완료하였고, 군은 올해 말까지 가맹점 5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안사랑인 가맹점 신청은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인구활력팀을 통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가맹점에는 전용 현판·배너가 제공되며, 부안군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부안사랑인 제도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손님을, 지역에는 소비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사랑인 제도는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생활인구 연계형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군은 제도 시행과 함께 부안사랑인 가입자 확대와 가맹점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지황' 가치 높인다... 정읍시·건국유업&햄 업무협약

'정읍지황'이 현대 식품과학과 만나 산업화와 시장 확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지난 6일 (화)건국대학교 건국유업&햄과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경철 건국유업&햄 사장이 참석, 정읍지황과 약재 등 약용작물의 산업적 가치 제고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정읍지황·약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 △제품 홍보·판매 촉진과 국내외 판로 확대 등 약용작물 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정읍은 비옥한 토양과 기후 조건으로 지황 재배에 최적지로 꼽히며, '정읍지황'은 예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효



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숙지황은 생지황을 찌서 말린 것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 약용작

물의 품질과 활용 범위를 높이고, 과학적 연구 기반의 가공·제품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국유업&햄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 자립·진로 설계 돕는다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9일까지 모집

정읍시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올해 마지막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취업 교육 또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을 비롯해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탈북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총 30명을 선발하며, 프로그램은 8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주간 운영된다. 참여자는 오전반과 오후반 중 선택할 수 있고, 이수 기준 충족 시 최대 220만원의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퍼스널 컬러 진단, 정리정돈 및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부터 진로 컨설팅, 직업 적성검사, 이력서 작성법, 직장 내 소통법 등 실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ak24.go.kr), 네이버폼, 또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정읍시 서성길 6)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063-536-0333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기 프로그램은 올해 마지막 기수로 운영되는 만큼, 구직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되찾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